



2026. 7. 10 (금)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모기지보험 제한에 대출한도 축소...은행권 줄줄이 주담대 빚장

머니투데이

<https://zrr.kr/6ODBXL>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가 나올 때까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인 MCI, MCG 가입을 제한
앞서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 하나, IBK기업, 경남은행도 MCI, MCG 가입을 제한... 5대은행 가운데선 우리은행을 제외하곤 모기지보험 가입이 불가능

금융위 "기업 사내대출 자율 관리 확산해야"...협조 요청

연합뉴스

<https://zrr.kr/y6XpQS>

금융위원회는 사내 대출에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기업들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고가주택 제한 등 자율 관리 노력을 요청
다만 고액 사내대출이 금융권 대출과 합쳐질 경우 차주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지역 포용금융 확대 나선 금융위...우체국 은행대리업·공동대출 도입

데일리안

<https://zrr.kr/FkzHZa>

금융위원회가 지역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체국을 활용한 은행대리업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공동대출, 상생보험 확대 등을 추진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포용금융'을 본격 확대하겠다는 구상

'자영업자 대출 5조' 케이뱅크, 보증서대출 한도 두 배 확대

한국경제

<https://zrr.kr/bbPAaE>

케이뱅크는 지난달 말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 공급액이 5조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조5200억원어치 대출을 신규 취급하며 지난해 전체 공급액의 82%를 반년만에 달성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1억원인 보증서대출 한도를 오는 14일부터 2억원으로 변경

중기특화 증권사 7곳 지정...3년간 모험자본 공급 주력

이데일리

<https://zrr.kr/gAAOaj>

금융위원회는 7개 증권사 제6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으며, 기간은 10월부터 2029년 7월9일까지 3년간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중기특화 증권사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코빗 품에 안은 미래에셋 "글로벌 자산시장 새 표준 만들 것"

연합뉴스

<https://zrr.kr/EYdOkA>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를 승인...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 그룹 계열사가 가상 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 사례
미래에셋그룹은 "이번 인수는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의 경계를 허물고, 글로벌 투자 생태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라고 강조

OK금융, MG손보 품고 종합금융그룹 노린다

한국경제

<https://zrr.kr/ISr62x>

예금보험공사는 예별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OK금융을 내정
매각 본입찰에는 OK금융과 흥국화재, 한국투자금융지주, JC플라워 등 4개사가 참여했으나, 매각자인 예보로부터 받는 지원금 요구 금액이 승부를 가른 것으로 판단

건전성 규제에 묶인 보험 업계...현장은 '생산적 금융' 여행

블로터

<https://zrr.kr/HtF189>

정부가 금융권 자금의 혁신기업·신산업 유입을 촉진하는 '생산적 금융'에 힘을 실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투자 확대를 위해 K-ICS 등 자본규제 개선 요구
현재 시행 중인 건전성 규제가 투자를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빨리 도입해야...은행 중심 발행 필요"

이데일리

<https://zrr.kr/wWybes>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과제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해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화폐(CBDC)·예금토큰과 민간에서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경쟁적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이라 입장도 강조

美 '클래리티법' 새 초안 이르면 다음 주 공개...7월 처리 분수령

블록미디어

<https://zrr.kr/9rYul0>

미국 의회가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의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클래리티법'의 새로운 통합 초안을 이르면 다음 주 공개
다만 민주당의 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만큼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전망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